

출판사 주최 세미나 부쩍 활기 띤다

한신문화사 민음사 열음사 등서 잇달아 개최... '담론문화' 거점 역할

올들어 열렸던 몇건의 비중있는 학술·문화 관련 토론회가 국내 유수의 출판사들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4월1일 열렸던 민음사 주최의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기획토론회를 비롯해 열음사 주최로 지난 5월20일 열렸던 「포스트모더니즘 국제세미나」, 그리고 반년간지 「현대 비평과 이론」을 펴내고 있는 한신문화사가 주최하여 지난 6월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던 「문학이론의 수용과 교육」 주제의 토론회들이 그것이다.

이같이 출판사가 주최가 되어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국내에서는 드문 일로 책의 틀 속에 담아내었던 활자를 말로써 풀어내도록 함으로써 출판사가 또다른 문화형태, 즉 활자문화만이 아니라 담론문화의 창조에도 기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그것은 많은 저자와 무수한 독자들을 잇는 상업적 연결고리인 출판사가 책에서 파생된 하나의 주제를 매개로 자칫 이론의 생산자와 그것의 수용자로 고립될 수 있는 이 두 집단을 하나의 논의의 장에 모으는 역할로도 관심을 모은다.

현비의 「문학이론의 수용과 교육」

먼저, 가장 최근에 열렸던 「현대비평과 이론」(한신문화사) 제1회 세미나는 김윤식(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내가 경험한 60년대의 신비평」, 광광수(서울대 불문학) 교수의 「구조주의 수용의 문제점」, 도정일(경희대 영문과) 교수의 「이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발표가 각각 있었고, 이상섭(연세대 영문과) 교수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현비'의 정정호(중앙대 영문학) 편집위원은 "지난 90년 가을 반년간지로 출발한 「현대비평과 이론」이 올 봄호로 6호째를 맞았다. 그동안 서양의 문예이론 및 비평글들을 폭넓게 소개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반성도 컸다. 외국 이론을 주제적으로 수용·비평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그것이다. 이제 적지않은 시간이 흘렀고, 따라서 한번쯤 중간점검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 잡지를 내고 있는 한신문화사가 국내물의 출판 외에도 영문학 관계 작품들이나 이론서 등을 수입, 영문학 및 외국문학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영향을 끼쳐온 외국도서 수입상임을 감안할 때 '...수용과 교육'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잡지 쪽이나 출판사 양쪽

출판사의 토론회 주최는 활자문화

만이 아니라 담론문화의 창조에도

기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그동안의 세미나나 학술토론회가

학회 및 전공집단에 의해 주도됨

으로써 그 집단 내의 행사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출판사의 그것은

그 토론대상을 일반대중들에게까지

넓혔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에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민음사의 「영상세대...」

「세계의 문학」 주최의 「기획토론회」는 다른 세미나들에 비해 훨씬 대중적인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출판사의 편집주간 이영준씨는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게 되었던 동기를 말한다.

"90년대에 들어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환경이 넓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문화는 더 위축된 것 같다. 대화와 토론이야말로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 우리의 지식인 사회는 서로 분산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열린공간을 마련, 한자리에 모으으로써 이 시대의 담론문화를 만드는 일이 당면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연대에 잡지매체가 어느 정도 해내었던 이 역할을 90년대 상황에서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TV매체에 이 일을 맡길 수도 없는 일이다. TV가 그 매체의 속성상 지식인 사회의 문화의 흐름을 요약 정리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화대중의 비판이 자유롭게 넘나들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는 담론문화는 결코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러한 90년대 한국의 문화현실이 어쩔 수 없이 출판사들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물론, 출판사가 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누가 시키니까 마지 못해 수용한 수동적인 응낙이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다시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출판사들이 담론의 주제를 기획해내고 그 장을 마련하며, 담론자들을 한자



지난 5월20일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열렸던 열음사의 '포스트모더니즘 국제세미나' 장면.

리에 모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졌다는 말도 된다. 다시말하자면 출판사가 '문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첫번째의 시작은 지난 4월1일 이 출판사가 위치한 강남출판문화센터의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발제는 정원근(서강대 강사, 영상커뮤니케이션)씨가 맡았고 토론의 사회는 사회학 강사인 김성기(서울시립대)씨가, 토론자로는 도정일(경희대 영문과, 문학평론가) 강명구(서울대교수, 커뮤니케이션이론) 김용호(서강대 강사, 언론학)씨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 발제 발표와 토론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진행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민음사측은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발제내용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였는데, 다음 토론회부터는 「세계의 문학」에 발제내용을 먼저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자나 참가자가 충분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진 다음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변화를 주겠다고 한다.

출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연 열음사의 동기도 '현비'의 취지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하나 있다. 노혜경 열음사 편집부장의 이야기는 이렇다.

"「외국문학」을 오랫동안 발간해오다 보니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세계적으로 문학적 논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실체가 늘 궁금했었다. 하지만 출판사의 재정형편으로는 외국 유수의 비평가들을 이곳으로 불러온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이었다. 그런데 영자지 「블랙크레인」을 낸다는 소문이 나자 문예진흥원

에서 지원금을 줄테니 세계유수의 문학비평가들을 모아 학술세미나를 해보라는 제안이 있었고, 마침 바라던 바여서 본래는 다섯명으로 제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금 약속이 지지부진해지더니 결국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이미 벌여놓은 일, 출판사에서 재원을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초청을 하려고 했던 5명의 비평가는 테리 이글턴 외에도 레슬리 휘들러, 브레드릭 제임슨, 소앵카 커머드 등이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은 이들 다섯 사람이 '모더니스트'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이유였다.

"사실 이번에는 국제세미나의 요건을 갖추는데 급급했다. 한번 해보고 나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실 문화부의 지원금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초청연사에게 제대로 사례도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토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명분을 세우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만 분명하면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각각 취지는 다르지만 책을 만들어 팔고 잡지를 통해 신이론을 보급하는 활자매체 제작자로서 느끼는 시대적인 사명감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대개의 세미나나 학술토론회가 학회 및 전공집단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그 전문집단 내의 행사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출판사에서 여는 세미나는 그 논의대상을 일반대중들에게까지 넓혔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정혜옥 기자